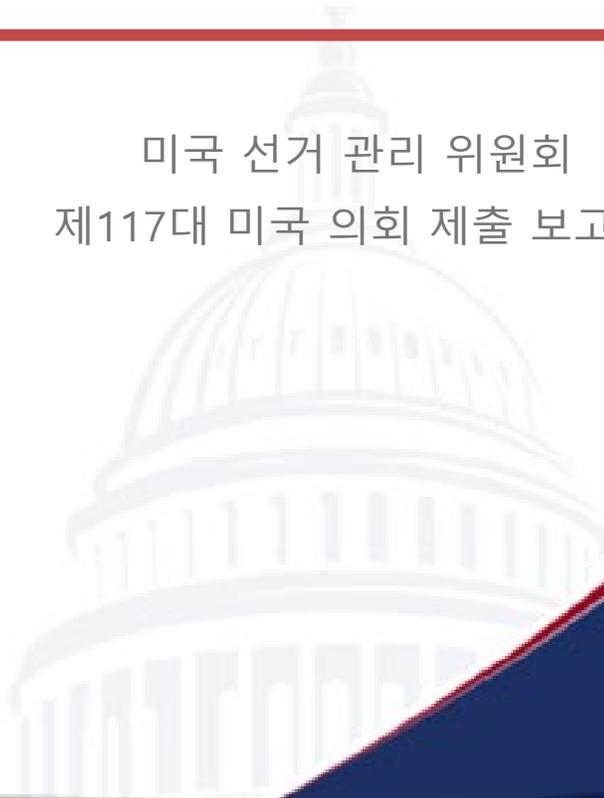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 조사 2020 종합 보고서

미국 선거 관리 위원회
제117대 미국 의회 제출 보고서



핵심 요약

2004년 이후, 미국선거관리위원회 (EAC)는 각 연방 총선 후, 선거 관리 및 투표에 관한 설문조사 (EAVS)를 실시해왔습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는 미국인들의 투표 방식과 선거 관리 방식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5개의 미국 영토-아메리칸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요청합니다. 2008년부터 이 프로젝트에는 주 선거법, 정책 및 실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별도의 설문조사인 선거 관리 정책 설문조사 (정책 설문조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는 미국의 선거 관리에 관한 주 및 지방 관할 차원의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선거 관리 공무원들과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선거 이해관계자들이 투표 추세를 식별하고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을 하며, 선거 관리와 유권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자원에 투자하고 미국 선거 기반 구조를 더 잘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데이터는 미국 선거 기반 구조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선거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과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직면한 운영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설문조사는 연방 선거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책 입안자와 일반인들에게 매 2년 마다 제공하며, 또한 이것은 미국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요구된 보고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도와줍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는 또한 선거 감독을 관리하고, 문제 분석 및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고,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미국선거관리위원회는 또한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보 자료 센터를 만들어 정부 기관의 사명을 증진시키고 선거 관리 공무원들과 유권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또한 입법인 및 전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연방 투표법의 영향 및 변화하는 미국 선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0년 총선은 코비드-19 유행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행병과 그에 따른 공중 보건 비상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용하고 유권자들과 투표소 요원들 그리고 선거 관리 공무원 및 직원들 간의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하여 기존 선거 관행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주에서 선거일 전에 직접 투표와 우편 투표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미국 내 선거 관리의 가장 종합적인 설문 조사라는 이유로 인하여 2020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는 2020년 총선이 안전하고 보안된 방법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 선거 관리 공무원들과 투표소 요원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에, 미국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보고서를 제117대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연방 총선의 관리 방식 및 유권자들의 투표 양상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와 첨부된 선거 관리 정책 설문조사 (정책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다음의 선거 과정의 각 부분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 투표자 수, 투표 방법, 투표소, 투표소 요원 및 선거 기술은 제1장, “2020년 총선에서의 선거 관리 및

투표에 관한 개요”에서 다루어 집니다;

핵심 요약 | i



- 미국 선거를 관장하는 주요 법률, 규칙, 정책 및 절차는 제2장, “선거법 및 절차: 정책 설문조사”에서 다루어 집니다;
- 유권자 등록 및 명부 관리는 제3장, “유권자 등록: “전국 유권자 등록법 (NVRA) 및 그 이후”에서 다루어 집니다;
-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UOCAVA)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투표는 제4장, “2020년 군인 및 재외국민 투표: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에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 마지막으로,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의 방법론과 설문조사의 질문에 관한 설명은 제5장, “설문조사 방법론 및 절차”에서 논의됩니다.

투표 및 선거 관리 결과

2020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는 2016년 수준 대비 6.7%가 증가한 시민 투표 연령 인구 (CVAP)의 67.7%가 유효한 투표를 하여 2020년 총선이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에 의하여 현재까지 기록된 모든 연방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자 수를 보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와 비교할 때 거의 모든 주에서 투표자 수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사상 최고 기록인 2억900만 명 이상이 2020년 총선에 활성 유권자로 등록하였으며 이 선거에서 1억6,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유효한 투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또한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4.5%가 그리고 2018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의 58.2%가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하였으며, 2020년에는 30.5%의 유권자들만 선거일에 직접 투표하였습니다. 우편 투표로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유권자의 43.1%로, 2016년 수준 대비 거의 20%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선거 관할지역 차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전면 우편 선거를 새로 시행한 주 관할 지역과 우편 투표 요청 이유 제공 요구 사항을 제거한 주 관할 지역에서 우편 투표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전송된 총 우편 투표 용지 수는 2016년에 전송된 수의 두 배가 넘었지만, 유권자가 반환한 우편 투표용지 중 유효한 그리고 거부된 비율은 전국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주에서 775,101명의 투표소 요원들이 총 132,556개의 투표소에서 조기 및 선거일날 직접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또한 투표소 요원들의 연령 분포에 변화를 보였는데, 18~25세 사이 그리고 26~40세 사이의 투표소 직원들의 비율이 각각 6.2%와 15.0% 증가한 것으로, 그리고 61~70세 사이 및 71세 이상의 투표소 요원들의 비율은 각각 27.3%와 2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할 구역들은 또한 투표소 요원 모집은 2016년 대비 2020년에 더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의견에서, 많은 관할 구역이 그들의 모집 노력에 있어서의 교차 효과에 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관할 구역들은 코비드-19 유행병으로 인해 고령의 투표소 직원들을 장기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막바지에 투표소 요원들의 부족을 초래하였지만, 투표소 요원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투표소 요원으로 봉사하도록 장려하는 미국선거관리위원회와 주 선거 관리국 및 기타 기관들의 노력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소 요원들의 과잉 공급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들은 2018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이후 유권자 등록정보전자 안내서 (또는 전자 안내서)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17개 주에서는 그들의 모든 관할 구역에서 전자 안내서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스캐너와 투표용지 표시 장치 (BMD)는 계속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투표 장비의 유형이었고 또한 유권자-확인 종이 감사 추적이 장착되지 않은 직접 기록 전자 (DRE) 기기

ii | 핵심 요약

(유권자-확인 종이 감사 추적이 없는 직접 기록 전자 기기)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32개의 관할 구역만이 종이 백업 없이 투표 기기에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 관리 정책 설문조사 결과

주들이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에서 보고한 데이터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선거관리위원회는 주들의 선거 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주들 중 3분의 2가 단일 중앙 플랫폼이 호스팅하는 하향식 등록 시스템 또는 지역 관할 구역이 공급하는 정보로 주가 관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의 주들은 상향식 또는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주에서는 차량 관리국, 사망 기록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중범죄 또는 교도소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2018년 정책 설문조사 이후, 당일 등록 (51.8%)과 온라인 등록 (80.4%) 모두를 제공하는 주의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설문조사는 또한 유권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그리고 직접 투표소에서 발생 가능한 긴 줄과 혼잡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주 정책의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에 총 14개 주가 모든 등록 유권자들 또는 모든 활성 등록 유권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전면 우편 투표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중 10개 주는 주 전반에 걸쳐 전면 우편 투표를 실행한 반면, 4개 주는 지정된 관할 구역에서만 우편 투표를 실행하였습니다. 이는 3개 주가 주 전반에 걸쳐 우편으로 선거를 실시하였고 4개 주는 지정 지역 관할 구역에서만 전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던 2018년 정책 설문조사 대비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주들의 69.6%가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요청하는 이유를 제공 (7개 주가 2018년 정책 설문조사 이후 이유 요구 사항을 제거하였음)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주들의 51.8%가 유권자들이 전자적으로 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여건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설문조사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정책 변경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또는 그 변경이 코비드-19 유행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주가 투표 시스템이 승인 전에 반드시 테스트 및 인증되어야 하며, 가장 일반적인 인증 요구로는 미국선거관리위원회-인가 투표 시스템 실험실 (VSTL), 미국선거관리위원회-채택 자율투표제도 가이드라인 (VVSG), 그리고 주 및 연방 인증 방식에 의한 테스트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20년에, 전자 안내서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40개 주 중 55%가 전자 안내서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주의 사양에 대한 시험 및 인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선거 후 기간에, 78.6%의 주들이 투표 용지 집계에 사용되는 투표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집계표 작성 감사를 요구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주들 중, 약 4분의 3이 전통적인 집계표 감사 (무작위로 선택된 투표구 또는 투표 기기에서 고정 비율로 채택된 샘플 투표 용지를 조사하는)를 요구한 반면, 약 5분의 1의 주들은 위험 제한 집계표 감사 (감사 샘플 규모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를 요구하였습니다. 재개표가 실행되는 상황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모든 주가 재개표를 실행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법 (NVRA) 조사 결과

2020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총선의 활성 유권자 등록율이 시민 투표 연령 인구의 88.2%로 2016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이후 3.5%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총선 등록 마감과 2020년 총선 등록 마감 사이에 1억3백만 이상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6년 총선까지 접수된 등록 신청 수 대비 33.8%가 증가한 것입니다. 접수된 등록 신청서 중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관할 구역 간의 주소 변경을 포함하지 않은 유권자의 기존 등록 기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업데이트는 접수된 등록 신청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새로운 유권자 등록 기록으로 생성되는 유효한 새 등록은 접수된 신청서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였습니다.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의 이전 보고서에서 반복된 바와 같이, 주 차량 관리국이 등록 신청서 중 가장 큰 비중 (39.3%)을 차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신청서들의 두 번째로 가장 공통적인 출처는 등록 신청서의 28.2%를 차지한 온라인 등록이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또한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가 추적한 모든 등록 출처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 (SDR)을 허용하는 29개 주와 영토들은 2020년 총선 기간 동안 160만 개 이상의 당일 유권자 등록을 접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2018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 기간 동안 접수된 수의 약 두 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당일 유권자 등록은 사람들이 선거를 위하여 투표를 하는 당일에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국적으로 당일 유권자 등록은 조기 투표 기간 동안 접수되는 등록보다 투표 당일에 더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전국 유권자 등록법의 요건에 따라, 주들은 2018년 총선 등록 마감과 2020년 총선 등록 마감 사이에 2,800만 개 이상의 확인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들의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1,800만 개 이상의 유권자 등록 기록을 삭제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유권자의 등록 기록 삭제에 대해 인용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확인 통지서에 대한 무응답, 가장 최근의 두 번의 연방 총선에 불참여, 유권자가 투표 등록한 관할 구역으로부터 이사 그리고 유권자의 사망입니다.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UOCAVA)에 따른 조사 결과

주정부들은 투표 거주지에 부재 중인 군 복무자와 그들의 투표 자격이 있는 가족 그리고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 연방법에 따라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하의 유권자들에게 120만 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전송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전송된 투표용지 중 900,000장 이상의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 의해서 반환되었으며 그 중 거의 890,000 장이 개표되었습니다.

2016년 선거 관리 및 투표 설문조사로부터 시작된 추세가 계속되어, 2020년에는 해외 거주 시민 수가 군 복무자와 그들의 투표 자격이 있는 가족 수보다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인구의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iv | 핵심 요약

2020년에 해외 거주 시민이 전체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등록 유권자의 57.4%를 그리고 군 복무자와 그들의 투표 자격이 있는 가족이 42.3%를 차지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및 워싱턴 3개 주가 전국적으로 보고된 모든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등록 유권자의 40%를 약간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군 복무 유권자들에게는, 우편 전송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 (군 복무자 유권자들에게 전송된 투표용지의 거의 절반 차지)으로 보고된 반면, 해외 거주 시민들은 투표용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외 거주 시민에게 전송된 투표용지의 70.9% 차지) 보고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반환한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투표용지의 거의 98%가 개표된 것으로 그리고 반환된 투표용지의 2%가 약간 넘는 수가 거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33,000개 이상의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 (FWAB)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유권자가 그들의 공식 투표용지가 개표 시간 내에 지역 선거 공무원에 의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예비 투표용지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거의 24,000 명의 군인 및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 유권자의 연방 기명 부재자 투표용지가 개표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본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는 2020년 선거관리 및 투표설문조사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응용 조사 회사인 포르스 마쉬 그룹 유한주식회사 (Fors Marsh Group LLC)가 수행한 수집 및 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발행

미연방 선거관리위원회

633 3rd Street NW, Suite 200

Washington, DC 20001

www.eac.gov

